

與 “FTA 강행처리” ... 물리적 충돌로 가나

洪대표 “결단 시기 오고 있다” 민주당 “국민 저항 직면할 것”

한나라당이 1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저지지를 표명하면서 표결 과정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100% 받아들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이 다시 내놓은 안을 보면 과연 협상의 원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가진 의원총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폭력적 행태는 위협도 이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부끄럽기 너무 말할 수 없다”며 “모든 허물은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비준안 강행 처리를 서둘러 경우 ‘디데이’(D-day)가 오는 24일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이전에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온건파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과 비준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간 정치적 약속은 그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몸싸움 방식으로 (한미FTA를) 해결하려 한다면 정당정치의 불신을 증가시키는 부메랑이 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범구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은 한미 FTA 반대 서명작업에 돌입, 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서명서에는 ▲대통령의 국회 방문으로 당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 ▲10+2 재협상을 하고,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한 뒤에 비준안을 상정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밝혔다. 강경파 의원들은 46명이 서명한 이같은 내용의 서명서를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으로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다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상과 의원들이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건만 갖고 오면 당론을 바꿀 수 있다”며 “큰 고비가 한번 더 있는데 이것을 넘으면 타협의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폭 넓히는 범야권 통합정당

연석회의 한국노총 참여 결정...이학영·유원일·이병완 등도 합류할듯

범야권 세력의 통합정당 연석회의의 참여 선언이 이어지면서 야권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준비모임 단계인 연석회의에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가입한 상태. 여기에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야권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72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데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야권 통합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시민사회 활동가 가운데 진보적 대 중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진보통합 시민회의’도 연석회의의 합류를 결정한 상태다.

시민회의에는 이학영 시민회의의 상임의장과 조성우 민화협 공동의장, 문국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 임종철 어린이의료지원본부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당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소통합에 합류한 뒤 야권 대통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방향을 틀어 연석회의에 먼저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남요원 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이견도 있었지만 결국 연석회의에 참석, 야권대통합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광주·전남지역의 시민사회 인사들도 시민회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조한국당 유원일, 이윤경 의원과 송영오 전 대표도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참여당 내에서도 이병완, 정찬용, 이재정 상임고문 등이 연석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고문 등은 참여당이 민노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지도부가 통합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연석회의의 합류 결정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연석회의의 참여세력을 넓히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주 내로 당무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통합 수립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심각한 한나라 의총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한미FTA 관련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민노-참여-통합연대 ‘진보통합’ 타결 임박

민노당-국민참여당-통합연대가 참여하는 진보소통합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민노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선 지역구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참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2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3자 통합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쳐기로 했으며, 참여당과 통합연대에 다음달 4일까지 통합 참여 단위의 모든 절차를 완료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연대는 이날 대표단 회의를 열어 민노당의 결정을 수용할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통합연대는 진보신당을 탈당한 노회찬 심상정 임시대표와 조승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통합연대가 민노당 결정을 수용하면 3자 간 어렵사리 진행됐던 통합 논의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야권의 통합 작업은 민주당과 ‘혁신과통합’

을 주축으로 한 통합정당, 진보정당 3자간 진보소통합 정당 등 양대 구도로 정리될 전망이다.

진보정당 3자는 지난 10일 실무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총선 후보 조정이 안 된 지역의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참여당은 지난 14일 통합정당 출범 후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홍준표 또 막말 구설수

FTA 처리시기 싸고 기자와 돈내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15일 여의도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친한 기자와 내기를 했는데 11월 안에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가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서 “반대로 이달 내 통과시키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 안경을 벗기고 ‘아구통’을 한 대 날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저지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농담으로 표현

한 것이지만 일부에선 정도가 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논평을 내고 “홍 대표의 발언은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고, 김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가 중대사를 두고 돈내기를 한 것도 모자라 이기면 기자를 구타하겠다는 발언의 천박함이 경악스럽다”며 “집권여당의 대표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자하고 한 농담도 흡입이 잡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 대권콘셉트 ‘국민바라기 정치’

4년만의 지방대학 특강 ... 등록금·비정규직 해법 주력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권행보의 콘셉트로 ‘국민바라기 정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바라기’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 국민만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최근 각종 선거 등에서 나타난 국민의 불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진력하겠다는 취지다.

4년만의 첫 특강 무대로 지방대학을 정해 등록금과 취업 문제 등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정책 해법을 제시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이날 말과 내달에 활발한 특강과 공개 행사 등을 통해 당분간

정치보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제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가 최근 기자들과의 수차례 만남에서 ‘박근혜 조기등락론·신당론’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대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문제로,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대학등록금 완화·사회보험료 지원·노인 빈곤·비정규직 문제 등 중점 민생현안으로 내세울 정책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 참석, 대책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안철수 이번엔 에세이집 ... 대권행보완 무관?

내년 초 출간...사회 문제 분석 대안 제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내년 초 신작 에세이집을 출간할 계획이다.

김영사 관계자는 17일 “안철수 원장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개발서 성격의 도서를 출간할 예정”이라며 “아직 저자로부터 원고를 받지 못해 출간 시점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내년 초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안 원장은 11월 이 책을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야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한 그의 정치적 위상과 연결시켜 보는 시선이 있다. 에세이집에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느라 늦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영사 관계자는 “완벽주의자라고 할 만큼 글을 고치고 또 고치는 스타일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2004년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을 낸 뒤 후속 저술 논의를 해오다 지난해 말쯤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내용에도 관심이 잔뜩 모아지고

있다.

출판사 측은 “자전적 스토리는 아니고 교육, 과학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안 원장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다. ‘청춘콘서트’처럼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글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또한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원장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뜻밖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돈 등
임차권 채권	주매,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자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기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채준) 010-5311-0086

발목펌프 운동

신개발 프렌치나무 경침 7점용 음성카운터 운동화반?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 뿐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아파트용) 75,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봉(아파트용) 55,000원
- ▶ 경침 겸용 운동봉(주책용) 30,000원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6-1
농협: 601154-52-335334 서영섭

제일건강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 980평
-매매금액: 45억원
-용자금: 20억원(포함)
-의원/치과전문병원등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257평
-연건평: 900평
-보증금: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10억원
-매매가: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수원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국민은행 2차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 2차 모아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기획부터 책임마감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전남대 정문 2분)

- ★1억에 5채
- ★1년간 임대수익보장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양도세 혜택
- ★항시 건축특지구함

(주)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컨설팅(법인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무료상담)

다가구주택

- 북구 문흥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75평 건평130평
감정가3억3천만 최저가2억4천3천만

농지및토지

-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과수원3,600평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6천만
-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농지(관리지역)1880평
감정가1억1천만 최저가7천6백만

전원주택

- 담양군 남면 구산리 단독주택 대지152평 건평43평
감정가8천7백만 최저가6천2백만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단독주택 대지927평 건평42평
감정가1억7천만 최저가1억2천만

근린용지

- 남구 백운동 4차선대로변 대지70평(중주거지역)
감정가2억9천만 최저가2억

최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항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원당향원부원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